

농촌진흥청, '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' 거점농장 찾아 청년농업인과 소통

-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, 24일 강릉 여물농장 방문…농가 의견 청취
 -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및 활용 현황 점검
 - 사료비 절감, 출하 성적 개선 성과 확인
※2026. 3. 24.(화),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여물농장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3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여물농장을 방문, 자가 섬유질배합사료(TMR)* 제조현장을 둘러보고, 청년농업인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.

* 풀사료와 알곡혼합사료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.

조 원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(TMR) 제조 시설과 한우 사육 현장을 살핀 후 한우 사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술 활용 경험 등을 들었다.

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가 직접 사료를 설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.”라며 “여물농장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은 농가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이날 방문한 여물농장은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전수 거점농장이다. 2017년 귀농한 청년농업인 황성준 대표는 번식우와 고기소(비육우)를 포함해 한우 약 400마리를 키우고 있다.


특히 강릉 지역 특산물인 초당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(비지)와 쌀겨 등

농식품 부산물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(TMR)를 직접 제조해 활용하고 있다.

황 대표는 최근 사료 가격이 오르고 도체 가격은 낮아져 한우 농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를 활용하니 사료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좋아져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.

아울러 황 대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한우 농가에도 적극 공유해 기술 확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.

붙임. 방문 계획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	책임자	센터장	윤호백 (033-330-0601)
		담당자	연구관	백열창 (033-330-0612)
				

□ 추진 개요

- 일 자: 2026. 3. 24.(화) 9:40~10:20
- 장 소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여물농장(황성준 대표, 32세)
- 내 용
 - 한우 자가 TMR 제조 청년농가 현장 방문
 - * 사료비 전국평균 대비 16% 절감, 1st출현율 전국평균대비 92%↑(전국평균 39%→ 농가 75%)
 - 자가 TMR 제조 현장 시찰 및 현장의견 청취
 - 자가 TMR 거점농장 운영 점검

□ 방문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09:00~09:40	40분 ◦ 이 동(한우센터 → 농가, 46km) *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212-1	
09:40~10:20	50분 ◦ 황성준 농가(여물농장) - 자가 TMR 제조 현장 시찰 및 현장의견 청취 - 자가 TMR 거점농장 운영 점검	* 황성준 대표 * 기념촬영 등
10:20~11:00	40분 ◦ 이 동(농가 → 한우센터, 46km)	